

#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에 대한 통합적 고찰

김계경<sup>1</sup>, 김영아<sup>2\*</sup>

<sup>1</sup>전남대학교 간호대학, <sup>2</sup>제주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간호연구소

## An Integrative Review of Intervention studies o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Gye Gyoung Kim<sup>1</sup>, Young A Kim<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 Health & Nursing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이다. Whittemore와 Knafl의 통합적 검토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에 초점을 맞춰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최종적으로 자료의 분석을 위해 13개의 논문이 선택되었다. 대부분의 논문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중재를 제공하였고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어 가지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와 단점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논의된 손자녀 양육의 부담 및 문제점, 단점에 비해 개입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통합적 고찰의 결과는 미래에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통합을 위한 근거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Korea and promo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 integrated review method of Whittemore and Knafl was used in the study. Researchers collected the data for the analysis from an online database focused o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ubsequently, thirteen articles were selected for final data analysis. Most of the articles provide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grandparents in charge of raising grandchildren and described the need for support. In particular, the articles explained th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aused by being in charge of raising grandchildren. Although the number of intervention programs was small for the burden, problems, and disadvantages of raising grandchildren, most of them showed positive o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integrated review are meaningful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future to alleviate the burden on grandparents and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addition, the results can ultimately be used as evidence-based data for family health, happiness, and unity.

**Keywords** :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tervention, Integrative Review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20R1I1A3065986).

\*Corresponding Author : Young A Kim(Jeju National Univ.)

email: yakim@jeju.ac.kr

Received January 17, 2022

Revised February 14, 2022

Accepted March 4,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 1. 서론

우리나라 영유아 가구에서는 조부모가 개별 양육지원 제공자의 8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특히, 조부모가 10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기간은 2010년 평균 5.9년에서 2018년 8.4년으로, 1주일간 평균 돌봄 시간은 2010년 61.1시간에서 2018년 64.2시간으로 손자녀 양육의 기간과 시간 모두에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2,3].

손자녀에 대한 양육은 자녀양육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노년의 시기에 조부모가 다시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4]. 특히, 양육 조모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으며, 절반 정도는 성인자녀와 동거하며 손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5,6]. 조부모 손자녀 양육은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영아기부터 시작되어 양육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육아 휴직제도를 사용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7]. 한편, 조손가정에서의 조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손자녀와의 세대 간 인식의 차이 및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불안 등을 겪게 된다[5,8,9].

이러한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 돌봄미 사업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선단체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10,11].

‘엄마 역할을 하는 할머니’라는 ‘할마’, ‘아빠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라는 ‘할빠’라는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며[1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 증가와 함께 이를 반영하는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9,13].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9] 이러한 개입 연구의 현황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내 증재연구 결과들의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된 증재연구의 통합적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 고찰은 관심 현상을 보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실험 및 비실험 연구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유형의 연구 검토 방법이다[14]. 여러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 관련 연구에 있어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고령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자녀와 고령인구의 건강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손자녀 양육 조부모 증재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이해하고 증재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 증재연구와 관련된 국내 연구논문을 통합적 고찰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2.2 연구절차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손자녀 양육 조부모 증재연구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고찰방법의 5단계 를 따라 진행하였다[14].

#### 2.2.1 문제규명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규명한 문제는 ‘국내 손자녀 양육 조부모 증재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손자녀 양육 조부모 증재연구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손자녀 양육 조부모 증재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2.2 문헌검색

통합적인 검토를 위한 포괄적인 검색을 위해 검색 키워드는 ‘손자녀 양육’ 또는 ‘손자녀 돌봄’ 또는 ‘조부모 양육’ 또는 ‘황혼 육아’ 또는 ‘할머니 양육’ 또는 ‘할아버

지 양육'으로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과 한국 학술정보(KISS)를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였고,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어 논문, 연구대상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국인 조부모인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제외기준으로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가 연구대상이 아닌 논문, 조부모가 한국인이 아닌 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연구, 보고서, 학위논문을 제외하였다. 문헌의 검색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출판 시작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중복된 논문 773편을 제외한 49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초록과 제목을 검토하여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286편(관련없음 189편, 2차 자료 분석연구 43편, 회색문헌 32편, 문헌연구 21편, 종설 1편)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의 전문 검토를 통해 연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52편과 중재 연구가 아닌 146편, 동일 대상자로 진행한 1편의 연구를 포함하여 199편을 제외하였고,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기로 찾은 논문 1편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3편의 분석문헌을 선정하였다. 참여저자들은 문헌검색의 전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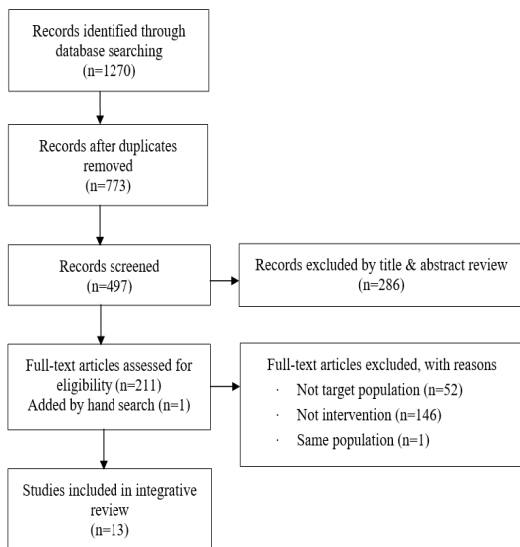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selection

### 2.2.3 자료의 평가

최종 선정된 문헌들의 질적수준 평가를 위해 Arbesman, Scheer와 Lieberman [15]의 5단계 근거수준 모델을 사용하였다. 가장 낮은 근거수준인 Level V의 사례연구는 3편, 질적연구는 3편, 근거수준 III에 해당하는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는 3편, 근거수준 II의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는 4편이었고, 본 연구의 문헌평가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Qualitative level of research (n=13)

Level of evidence	Research type	n(%)
I	Systematic review	0
	Meta-analysis	0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0
II	Two groups non-randomized	4(30.7)
III	One group non-randomized	3(23.1)
IV	Descriptive studies that include analysis of outcomes	0
V	Case study	3(23.1)
	Literature review	0
	Qualitative study	3(23.1)

### 2.2.4 자료의 분석

문제규명에 따른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조사방법, 조사문항 및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간 논의 및 합의를 거쳤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논문별로 1저자, 출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 분야, 주요어, 중재의 특성, 결과 등을 정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5 자료의 기술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최종 분석한 문헌들을 요약하여 구조화된 표를 작성하였고, 주요어에 대해서는 word cloud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도모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선택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한 손자녀 양육 조부모 중재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의 출판년도는 2005, 2010년에 각 3편, 2007, 2018년에 각 2편, 2015, 2017, 2020년에 각 1편이 확인되었다. 연구설계는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4편(30.7%), 한 집단 비무작위 연구 3편(23.1%), 사례연구



Table 2. Summary of studies included in the integrated review

No.	First Author (Year)	Study design	Participants				Field of study	Keywords	Intervention			Outcomes (* Significant)
			Subjects	n	Drop	Homogeneity test			Name	Format	Weeks/No. of sessions/Min	
[16]	Seo (2005)	Two groups non-randomized	GP (GF 1, GM 13)	14 (Exp. 7, Cont. 7)	0	○	Social welfare	GP bringing up grandchildren, Interpersonal relations, PET group program	PET	group	8/8/120	Interpersonal relations*, Observation
[17]	Seo (2005)	Two groups non-randomized	GP (GF 1, GM 13)	14 (Exp. 7, Cont. 7)	0	○	Social welfare	GP bringing up grandchildren, PEP, Quality of life	PEP	group	8/8/120	Quality of life*, Observation
[18]	Jeong (2005)	Two groups non-randomized	GM	34 (Exp. 17, Cont. 17)	0	×	Social welfare	Grandchildren rearing, GM educational program, GM' role	GM educational program	group	24/24/unclear	Perception of GM' role*, Experience
[19]	Lee (2007)	Qualitative study	GM	7	0	NA	Social welfare	GP raising grandchild family, GP, Grandchild, Group program, KHTP	Group program for stable relations	group	8/8/60~90	KHTP
[20]	Kim (2007)	One group non-randomized	GM	7	0	NA	Social welfare	None	Art therapy	group	8/8/unclear	Parenting stress, KHTP
[21]	Jung (2010)	Case study	GM	7	0	NA	Social welfare	GP-grandchildren family, Educational program for GP, Adolescence	GP educational program	group	6/6/120	Observation
[22]	Cho (2010)	Two groups non-randomized	GP (GF 31, GM 79)	110 (Exp. 55, Cont. 55)	0	○	Nursing, Social welfare	Rural area, GP-grandchildren family, Intervention service, Rearing effect, Health and nutrition effect	Rearing, health, and nutrition intervention	individual	52/52/60	Parenting stress, Health and nutrition effect
[23]	Seo (2010)	One group non-randomized	GP (GF 3, GM 5)	8	4	NA	Social welfare	GP, Strengths-based group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Strengths-based group education	group	8/8/90~120	Self-control*, Communication ability, Experience
[24]	Kwak (2015)	Qualitative study	GP (GF 3, GM 7)	10	0	NA	Education	Low-income GP-headed family, Edu-Care program, Qualitative research	Edu-Care program	individual	20/unclear/40	Experience
[25]	Yu (2017)	Case study	GM	10	0	NA	Product design	Caring for grandchildren, Musculoskeletal disorders, Child care products	Usage behavior of child care products	unclear	unclear/unclear	Usage behavior
[26]	You (2018)	Case study	GP (unclear)	6	0	NA	Education	GP,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organization, Difficulty in raising grandchildren, Education support program	Nurturing and education support program	group	8/8/90	Program development
[27]	Lee (2018)	Qualitative study	GM	6	0	NA	Education	Education programs for GP, Change in grandmotherhood, Process evaluation	GP educational program	group	3/3/90	Grandmotherhood changes
[28]	Yun (2020)	One group non-randomized	GM	23	0	NA	Social welfare	GP role, Self-esteem,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tress, Program effectiveness	GP role adaption support program	group	10/10/100	Self-estee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Note. \* p<.0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GP=Grandparents, GF=Grandfather, GM=Grandmother,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EP=Parent education program, KHTP=Kinetic House-Tree-Person, NA=Not applicable.

인별 가정방문을 통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24]. 그 결과 KHTP의 긍정적인 변화[19], 손자녀 학습 지도 및 양육기술의 향상과 심리적인 안정 경험[24], ‘가치관의 변화: 손자녀 삶의 조타수가 되도록’, ‘역할의 변화: 영향력 있는 할머니’, ‘관계의 변화: 할머니, 세대 간의 교량’이라는 조모됨의 변화를 보고하였다[27].

마지막으로, 본 증재 연구들에서 다루고자 한 주요 요인들은 조부모의 대인관계[16,23], 삶의 질[17], 건강 및 영양 상태[22], 자아통제감[23], 조모의 역할 인식[18], 양육 스트레스[20,22,28], 육아용품 사용 행동[25], 우울[28], 자아존중감[28], 긍정적 단어 사용 빈도[21], 심리적 안정 경험[24], KHTP의 변화[19,20], 조모됨의 변화[27] 등으로, 증재 프로그램 적용 후 개선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였다.

####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위한 증재 연구 결과에 대한 통합적 고찰연구로, 총 13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출판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자녀 양육 조부모 증재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다. 특히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가 8편,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가 5편으로 관련 증재연구가 꾸준히 보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자녀 양육으로 초래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들에 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증재연구가 부족하다고 밝힌 선행연구[9]와 유사하다.

연구설계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택된 13편의 증재연구 중 실험연구가 7편이었지만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4편, 한 집단 비무작위 연구 3편으로 나타나, 조부모 양육 증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같은 개별적인 실험연구들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교육 수준이 무학 및 초등학교 또는 서당 졸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를 보건데[29], 프로그램의 이해와 평가를 위해 설문지 등을 활용하기보다는 질적인 면담과 관찰을 통한 평가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9], 대상자의 인터뷰나 세밀한 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질적연구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검증을 하는 양적연구를 함께 활용한 혼합 증재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증재 대상자 측면으로는 조모가 7편, 조부모가 함께한 연구가 6편으로 총 참여자 수는 256명이었으며 이 중 조

부와 조모의 참여자 수를 알 수 없는 연구 1편을 제외하고, 조모 211명, 조부 39명으로 조모의 참여비율이 5배 이상 높았다. 국내의를 막론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는 것은, 여성이 주로 양육과 가정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9,30]. 조부의 손자녀 양육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지만, 남성 노인의 손자녀 양육 경험이나[31], 은퇴 남성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32]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참여가 확대되어가는 추세 속에서[1], 조부의 손자녀 양육 사례도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손자녀 양육 조부들이 손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증재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문헌들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학이며 2010년을 시작으로 간호학, 교육학, 제프리자리학에서도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증재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조손가족 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29] 손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조부모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수의 평균은 3.1개로 현재 질병이 없다고 응답한 조부모는 5.4%에 불과하며 손자녀 양육 시 교육비의 부족, 손자녀 학습지도와 조부모 본인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의 경험은 주로 돌봄 제공자로서 위치하며, 가족 관계 내 변화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며[13],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33] 나타났다. 이처럼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건강 악화에 기여함을[5,8] 고려하여 간호학 및 보건학 등 건강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발한 조사 및 증재연구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증재연구들에서 다루고자 한 요인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삶의 질, 건강 및 영양 상태, 자아통제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증재 프로그램들의 제공기간은 단기 3주부터 장기 52주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요인들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손자녀 돌봄으로 초래되는 조부모의 다양한 문제에는 조부모의 양육이 필요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 경제적인 어려움, 불충분한 사회적 지원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지원을 늘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며 조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근거 기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질적연구를 모아서 재해석한 질적 메타분석 연구[13]와 손자녀 양육 조부모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6], 2018년까지의 10년간 손자녀 양육참여 조부모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9]과 다르게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들을 보다 완전히 이해하고자 실험 및 비실험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들에서 밝히고자 한 대인관계, 삶의 질, 조모역할 인식, 양육스트레스, 경험 및 행동관찰 등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었다. 국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위한 중재연구들이 조부모의 웰빙과 사회적지지, 양육 기술과 아동의 행동문제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며 [34,35],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36]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중재연구들이 개발되고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고령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자녀와 고령인구의 건강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손자녀 양육 조부모 연구들이 근거에 기반한 중재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관련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이 더 많이 참여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중재연구들이 시도되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종합된다면, 가족의 대처력 향상 및 통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등의 정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

구를 통합적 고찰방법을 사용해 살펴보았다. 최종 선택된 13편의 연구들은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출판되었고, 연구설계의 유형은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한 집단 비무작위 연구, 사례연구, 질적연구로 다양하였지만, 실험연구 가운데 동일한 종속변수를 사용한 연구논문이 없어 효과크기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들의 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중재프로그램들의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더 많은 조부모 대상 중재연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수행된다면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의 경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National Daycare Survey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ed 2018 Nov 30]. Available From: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1591> (accessed Jan 1, 2022).
- [2]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0 Aging Research Panel (KLoSA) Basic Analysis Report [Internet].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cited 2013 April 5]. Available From: <https://keis.or.kr/user/extra/main/3874/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ubldx=1612&spage=1&onlyList=N> (accessed Jan 1, 2022).
- [3]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8 Aging Research Panel (KLoSA) Basic Analysis Report [Internet].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cited 2020 April 17]. Available From: <https://keis.or.kr/user/extra/main/3874/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ubldx=6053&spage=1&onlyList=N> (accessed Jan 1, 2022).
- [4] M. J. Shin, "Study on Experience with Grandmother in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6, pp.655-662,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6.655>
- [5] M. Y. Kim, H. M. Yoon, "Grandparent-headed families in poverty -A qualitative approach focusing on family ro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50, pp.145-177, 2015.
- [6] Y. H. Jung, "Research trends of support and education program on nurturing grandchildren: Focused on Korean thesis and journal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 No.6, pp.961-984,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6.961>
- [7] Y. J. Lee, "Exploring policies to support grandparents raising infants and toddlers and grand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Vol.20, pp.1-19, 2016.
- [8] H. K. Yang, "The effects of caring for grandchildren on grandparents' health",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20, No.3, pp.1-23, 2016.
- [9] H. W. Nam, Y. M. Kim,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grandparent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between 2008 and 2018",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8, No.4, pp.189-208, 2019.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9.28.4.11>
- [10] S. N. Lee, H. S. Kim, "A longitudinal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caring and non-caring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73, pp.95-124, 2020.  
DOI: <https://doi.org/10.15300/icw.2020.73.2.95>
- [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terne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ited 2021 Dec 16], Available From: <https://acli.gov/programs/support-caregivers/supporting-grandparents-raising-grandchildren-0> (accessed Jan 1, 2022).
- [1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Urimalsaem [Internet].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cited 2019 Sep 3], Available From: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58333&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58333&viewType=confirm) (accessed Jan 1, 2022).
- [13] K. J. Lee, H. K. Yean, A. R. Hwang, "Qualitative meta-analysis of grandparents' experiences of supporting grandchild-rearing",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11, No.3, pp.93-113, 2020.
- [14] R. Whittemore, K. Knafle, "The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2, No.5, pp.546-553, 2005.
- [15] M. Arbesman, J. Scheer, D. Lieberman, "Using AOTA's critically appraised topic (CAT) and critically appraised paper (CAP) series to link evidence to practice", *OT Practice*, Vol.13, No.5, pp.18-22, 2008.
- [16] H. S. Seo, "The effect of group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f grandparents bringing up grandchildren through P.E.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27, pp.279-302, 2005.
- [17] H. S. Seo, "The effect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on quality of life of grandparents bringing up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0, No.3, pp.61-81, 2005.
- [18] M. K. Jeong, "The effect of grandmother educational program for grandmother training on perception of grandmother' rol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5, No.3, pp.155-175, 2005.
- [19] M. Y. Lee, "Group program for forming grandparent-raising grandchildren family's stable relations", *Korean Journal of Welfare Counseling*, Vol.2, No.2, pp.69-84, 2007.
- [20] H. M. Kim, Y. S. Gang,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rt therapy for reduction of parenting stress in main caregivers of grandparents' families -Focused on grandmother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2, No.2, pp.383-391, 2007.
- [21] E. M. Jung, "A study on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s to the low-income grandparents raising adolescent grandchildren",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7, No.1, pp.5-21, 2010.
- [22] Y. H. Cho, Y. C. Park, "The effect of rearing, health and nutrition intervention services on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 a rural Korean area",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Vol.35, No.3, pp.274-286, 2010.  
DOI: <https://doi.org/10.5393/IAMCH.2010.35.3.274>
- [23] H. L. Seo, Y. H. Kim, "A strengths-based group program for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Development an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47, pp.161-186, 2010.
- [24] Y. J. Kwak,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ffects of an Edu-care program for low-income grandparent-head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1, No. 2, pp.261-281, 2015.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5.11.2.261>
- [25] J. A. Yu, H. S. Kim, "A study on the usage behavior of child care products for elderly participating in grandchildren caring -Focused on design direction for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3, No.1, pp.391-401, 2017.  
DOI : <https://doi.org/10.18208/ksdc.2017.23.1.391>
- [26] H. J. You, "Model development of nurturing and education support program to aid grandparents in struggle of nurturing grandchildren in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organiz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0, pp.279-304, 2018.  
DOI :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10.279>
- [27] Y. E. Lee, S. K. Kang, M. R. Chung, "Changes in grandmotherhood participating in education program for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38, No.1, pp.261-288, 2018.  
DOI : <https://doi.org/10.18023/kiece.2018.38.1.011>
- [28] H. J. Yu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randparent role adaption support program for raising grandchildren : Applying a family resilience respective",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Vol.37, No.2, pp.223-245, 2020.  
DOI : <https://doi.org/10.33471/ILA.37.2.9>



[29] Save the Children. Grandparents Families Survey Research Report [Internet]. Save the Children [cited May 12], Available From: <https://www.sc.or.kr/news/reportView.do?NO=70967> (accessed Jan 1, 2022).

[30] J. S. Bates, A. C. Taylor, "Grandfather involvement: Contact frequency, participation in activities, and commitment", *The Journal of Men's Studies*, Vol.21, No.3, pp.305-322, 2013.  
DOI : <https://doi.org/10.3149/jms.2103.305>

[31] H. S. Lee, H. K. Shin, "A study on the grandchildren-raising experience of older men",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No.17, pp.81-113, 2013.

[32] S. B. Jun, *A study case on the grandparenting experience of an older ma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33] W. K. Kim, J. A. Jeon, "Research trends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Korean journals 1991-2000",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5, No.4, pp.653-671, 2010.  
DOI : <https://doi.org/10.18205/kpa.2010.15.4.006>

[34] K. L. Chan, M. Chen, K. M. Camilla Lo, Q. Chen, S. J. Kelley, P. Ip,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for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29, No.6, pp.607-617, 2019.  
DOI : <https://doi.org/10.1177/1049731518798470>

[35] J. N. Kirby, "The potential benefits of parenting programs for grandparents: Recommendations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4, No.11, pp.3200-3212, 2015.  
DOI : <https://doi.org/10.1007/s10826-015-0123-9>

[36] S. J. Kelley, B. C. Yorker, D. M. Whitley, T. A. Sipe, "A multimodal intervention for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n exploratory study". *Child Welfare*, Vol.80, No.1, pp.27-50, 2001.

김 영 아(Young A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 다문화간호, 간호정책, 질적연구

김 계 경(Gye Gyoung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2017년 3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관심분야>

성인간호, 만성질환, 건강행동, 간호교육